

# 동물권리와 수의사

장 칠 봉  
재미한인수의사회

최근 중앙일보엔 동물에 관해 몇가지 기사가 소개됐다. 하나는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인간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며,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정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용순 비서를 통해 김대중대통령에게 "보내주신 진돗개가 잘 자라고 있으며 (이 개는)선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이라고 전해 왔다는 것이다.

또 얼마전엔 한 기자칼럼에 "한국사람들이 보신탕을 즐기는 것은 한국고유 음식문화인데 외국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한국인의 개고기 음식습성에 대해 비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소개됐었다.

개고기 음식을 반대하는 수의사들을 동물권리 운동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다. 사실은 다르다. 1998년 미국수의사회는 사람과 동물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 '동물권리'를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수의사

들은 '동물권리'라는 용어 사용을 꺼리지만 동물의 복지를 위해 인도적으로 사용시엔 찬성하고 있다.

임상수의사들은 수의사 선서를 잘 기억한다. "수의사인 나는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며,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며, 수의사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이로써 공공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이 현장에 의하면 동물의 건강과 고통의 감소가 우선 순위다. 그러나 이런 임무의 근본 목적은 공공이익, 즉 인간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수의사로서 딜레마가 있다. 동물을 위한 것이라도 인간, 즉 동물 주인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수의사로서 자격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나의 임상경험을 소개한다.


2년전 미국 로컬신문 및 중앙일보등에서 기사화한 "강아지를 살려준 것도 잘못인가요"란 제목과 관련된 수의사가 바로 나왔다.

어느 백인부부가 죽음 직전에 있는 강아지를

치료하고자 병원으로 왔다. 수술비와 치료비가 800달러가 된다는 설명에 그들은 돈이 없으니 안락사를 요구했다. 개를 두고 그들이 떠난 후 난 곰곰 생각했다. "나의 강아지를 살려주세요" 애걸하는 그 부부의 어린 자녀들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무료로 수술해주면 주인도 좋아하겠고 강아지 생명도 건지는 일이라 안락사하지 않고 수술하도록 했다. 수술도중 죽게 될지도 모르고 만약 죽는다면 주인에게 슬픔을 두 번 넘겨 주는 격이라 사전통보 없이 수술했다. 다음날 수술도 성공이고 강아지도 회복돼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고 주인에게 강아지를 돌려줬다. 몇주일후 이들은 안락사시키라고 했던 강아지를 살린 것은 계약위반이고 수의사 윤리에 어긋난다면 경찰 및 수의사위원회(Board)에 고소를 했다. 경찰엔 '도둑 및 사기'로 고발했고, 수의사보드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 경찰에선 고소내용 불충분으로 중간에 기각됐지만 보드에선 계약위반을 했으니 수의윤리 위반으로 벌금 1,000달러를

부과시켰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의사가 (주의무인) 동물건강과 고통을 보살피고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을 했더라도 주인과의 관계로 맺어진 수의윤리에 저촉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임상수의사들은 개체생명을 중시하는 동물권리 주장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가치를 찾는 인간중심 틈바구니에서 시련을 겪기도 한다. 임상수의사가 직업인 나는 굶주린배를 채우기 위해 배고픈 사람이 개고기 먹는 것에는 반대 않는다. 다만 생명체를 취급하는데 우리 인간은 정중해야 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인간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존과는 거리가 먼 기호품으로 개가 보신탕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생존을 위해 보신탕을 해먹을 망정 개를 나무동지에 매달아 패면서 잔인하게 고통을 주며 도살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진돗개를 송이버섯 먹듯 '단고기탕'해서 맛있게 먹겠다고 하지 않고,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으로 잘 보호하고 키우겠다는 말이 여운으로 남고 있다. 

자극성 없는 안전한 귀 세정제

## 에 피 오 틱



- 외이염 치료시 어떤 세정제를 사용할 것인가?**

☞ 자극성이 없이 귓속의 청결을 유지하고 귀지제거를 확실히 하여 치료효과를 증진할수 있는 에피오틱이 필수입니다.
- 왜 에피오틱으로 귀를 세정하는가?**

☞ 광범위한 항균작용 및 귀지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Virbac이 보장하고 귀 세정후 신속하게 건조되기 때문입니다.